

칠레 최근 건설 인프라 동향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-12-14

1. 칠레 건설상공회의소(Camara Chilena de la Construcción, CChC)는 최근 전 세계 고금리·고물가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칠레 건설 투자가 금년 4%, 2023년에는 5.3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
 - 러-우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에 기인한 △원자재 가격, △물류 비용 상승 등 대외적 상황이 건설 인프라 투자 침체 주원인으로 꼽힘.
 - 아울러 국내적으로 △건설 투자 분야의 복잡한 행정 절차, △칠레 정세 불안정이 야기한 법적 확실성 약화가 일부 기업들의 파산 및 구조조정, 노동 인력 감축을 초래하여 다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칠레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됨.
 - 특히, △금년 동 분야 노동력 규모는 작년 대비 약 5천여 명이 감소하였으며, △고용 효과는 통상 투자 감소 이후 나타나는 점 고려시, 고용 충격은 2023년 본격 드러날 것으로 전망
2. 이에 따라, 보리치 대통령은 건설 및 인프라 시장 불황 타개를 위해 지난 9월 재무부와 공공사업부를 주축으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‘칠레투자종합대책(Plan Invirtamos en Chile)’을 발표함.
 - 상기 대책은 △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혜택, △공공분야 건설 투자 확대 방안, △재정 지원 방안 확대, △그린 분야 공공인프라 및 투자 계획 추가, △인허가 및 규제 절차 효율성 제고, △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, △투자 분야 민관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이를 통해 향후 총 투자가 5%p, 고용 창출은 0.5%~0.8%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 - 아울러 동 대책은 칠레 전역에서 건설 및 인프라 분야 노조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립
3. 한편, 공공사업부(MOP)는 △원자재 및 건축자재 가격의 연간 최대 40% 상승(CChC 통계), △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의 임시 조치로써 ‘공공사업법규(Reglamento de Obras Públicas, DS75)’ 개정안*을 발표함.

* 2021년 9월 이후 급등한 물가를 고려하여 물가 상승분이 건설사 예산안의 2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등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성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매커니즘

- 또한, 공공사업부는 장기적으로 △칠레 남부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, △원주민 거주 지역 개발, △농촌 지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, △교량 건설에 기후변화 현황을 고려한 새로운 설계 마련 등 향후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.
-